

국력 배양과 국민의 과학화 운동



과학 기술처 장관 최 형 섭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통령 각하께서 제창하신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입국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 깊은 전국 교육자대회에 본인이 참석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신헌정의 첫해를 맞이하여 대통령 각하께서 왜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제창하셨고 “70년대 기술혁신을 지향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자세와 방향을 다같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은 곧 국력이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앞으로 이 지상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땅덩어리가 큰 민족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민족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남보다 빨리 발전하고 앞선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시고, “우리가 땅이 적다, 지하자원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다른 민족보다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선진제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이나 여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근일에 와서 이스라엘의 예를 보더라도, 그들

은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사막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고 또한 자주국방을 훌륭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제국이나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자원이 부족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풍부한 자원과 좋은 여건을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간의 달 착륙을 가능하게 한 우주 개발, 새로운 자원을 탐구하려는 해양개발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서의 원자력개발, 눈부신 전자공학의 발전, 의학의 발달과 인간생명, 현상의 규명,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발 등, 세계의 과학기술은 가속적으로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분야에서는 녹색혁명을 이룩하고 교통통신 혁명은 지구상을 일일생활권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산 시설은 자동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의 내일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혁신과 과학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만이 어찌 이를 좌시하고 조상이 물려준 가난과 여건의 불비만을 탓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겨레가 지니고 있는 과학적 천품과 소양을 제발하여 우리 세대에 과학한국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1. 60년대의 과학 기술 기반 구축

다행히 지난 60년대에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

개발을 이룩하는 한편, 대통령 각하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열의와 영단에 힘입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행정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처의 발족, 산업과학 발전의 중추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고급과학두뇌의 양성을 위한 한국과학원의 설립을 비롯하여, 서울연구개발단지의 조성, 정부연구투자의 증대, 국제기술협력의 확대, 과학하는 풍토조성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빠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이 그 출발은 일천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모범적인 발전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은 선진제국과 비교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수백년에 걸친 과학지식과 인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과학기술을 쌓았고 계속하여 과학기술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하려면 그들보다 수십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노력입니다.

그리하여 하루 속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며, 모든 국민이 기술과 기능을 익히고 배워 전국토의 과학화, 전국민의 기술화로 잘 사는 나라, 생산하는 나라, 밝고 건강한 나라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2. 70년대 과학 기술 진흥 시책

70년대 우리의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먼저 요약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고,
둘째, 전략산업기술의 개발을 적극화하며,
세째, 과학하는 나라, 기술하는 국민으로서의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시책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아가는 데는 두뇌 개발과 기능의 숙달로 수준 높은 과학기술인력



의 배양, 확보를 기하고, 기초적인 연구활동의 강화로 과학기술저력을 배양하며,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국내외 여건에 맞추어 제도와 체제의 정비를 기해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개발과 기술 숙달

질 높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를 위하여는 고급두뇌의 개발과 생산성 높은 기능의 숙달이 중요합니다.

고급두뇌의 양성기관인 대학과 대학원은, 그간 급진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이나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낙후되어 있는 이공대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주역을 담당할 우수두뇌를 양성할 목적으로 모든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육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수와 학생이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교과목강의에 편중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연구가 즉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대학 및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진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과 비슷한 형태의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여, 대학의 연구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연구가 국제산업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목적 있는 기초연구를 조성하며,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계함으로써 연구 분위기의 쇄신을 기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하에서 산업의 고도성장과 수출의 신장을 기하기 위하여는 전국민이 일인 일기화를 목표로 “전국민의 과학화, 기술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능은 어릴때부터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청소년의 조기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찰력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관련된 기본교육에 주력하며, 중학교정도 독일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기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기 위주의 교육체제로 개편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학교정도를 실기교육 위주로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과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체능교육에 있어 달리기, 뛰뛰기 등 기본동작이 체능 향상의 기본인 것과 같이 기능교육에 있어서도 방대한 시설이나 최신의 기기를 필요로 함이 없이 기본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스와” “줄”만 가지고도 기계제작이나 금속가공에 있어서의 기본 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며, 톱과 대패만 가지고도 목공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은 인문계, 자연계 할것 없이 모두가 이 기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체력장”과 유사한 제도로, 각급학교에서 필히 익혀야 할 기본기능을 표준화한 “기능장제도”를 제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기능화를 기함에 있어서 기능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이야말로 기능숙달의 요체가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능자를 경시하는 전통적인 사회 풍토에서는 공업 입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능국가인 독일의 예를 들면 기능의 최고자격인 Meister를 획득할 경우 전기, 전자, 기계, 공예 등 특정업종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공장에 취직할 때에 좋은 대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기능자에 대한 전통적인 관

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우대하여 기능축적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산업 기술의 발전

우리 나라 산업수준은 그 간의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크게 향상되었지만, 앞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추진하려면 산업기술의 획기적인 향상발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산업기술개발전략은 첫째, 선진산업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도입된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 흡수하기 위한 자체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음은 공업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전산업에 파급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개발의 주역은 어디까지 민간기업 스스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강력한 유도지원시책을 펴 나아갈 것입니다.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주요 시책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개발촉진법과 기술용역 육성법을 제정하여 민간산업계의 기술 개발을 유도, 지원하고, 공장건설, 댐, 항만건설 등 주요기술용역업무를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합시책을 펴 나갈 것이며,

둘째, 이제까지 우리 나라 산업 기술 개발의 중추전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업무를 분화발전시켜 선박연구소, 주물기술센터, 정밀기계설계 및 가공 센터, 종합금형 센터, 해양 개발 연구소 등 기술 및 자원을 담당하는 개발연구기관들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전문기술분야의 수요에 대비하며,

셋째, 국공연구기관들을 정비강화하여 대량생산과 제품의 품질향상의 선결요건인 표준화 및 검사업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네째, 80년대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또 하나의 (第二)연구학원도시를 10개년 계획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 홍릉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 센터 등의 연구소군을 집결시켜 제일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산업기술은 한 가지 전문적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경제학자 그리고 사회학부문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팀·웍”을 이루게 하여 다분야간의 협동연구가 이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들의 상호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지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연구시설 및 자료의 공동활용으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될 연구학원도시에는 새로 건설될 연구소, 기존 국공립연구기관, 이공대학 또는 기존의 지방대학 중 확충이전이 필요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입주하게 함으로써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풍토 조성

이상 말씀 드린 두뇌개발이나, 기능의 숙달,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강화, 그리고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제시책도 전국민이 호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0년대 과학기술시책의 하나는 국민의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 과학 기술 기반의 구축

○ 산업 기술의 전략적 개발

○ 과학기술 풍토조성이 70년대의 시책방향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주제인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

배경과 당위성

대통령 각하께서는 연초에, 이제부터 “우리 모

두가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전개하자”고 하시면서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혀야만 우리의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가서 100억불 수출,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 목표달성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겠으며, 이것은 국민학교 아동에서 대학생, 사회성인까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신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이야말로 유신이념의 국민생활에서의 구현이며, 조국근대화를 위한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과학화운동의 배경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100억불 수출—개인소득불 1,000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중화학 공업중심의 경제건설이라는 우리의 당면과업 완수를 위하여는 기술개발이 필요불가결하고,

둘째, 자본과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의 여건하에서 풍부한 인력자원의 활용이야말로 국가목표달성의 관전이며,

셋째, 우리 국민생활에 잔존하여 있는 전근대적인 비합리성을 불식하고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를 구축하는 일이 긴급하며,

네째, 과학화운동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의 상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이념

그리하여 과학화운동의 목표와 이념은 합리성, 능률성, 창조성 및 협동 정신을 기조로하여 국민생활에 잔존하고 있는 비합리성을 불식하여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국민기풍을 진작하고, 국가건설에 전국민의 역량을 결집참여하도록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화 운동의 배경, 이념 그리고 목표 아래 앞으로 전개할 이 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드리면

내용과 방향

(1) 전국민의 기술 및 기능화 촉진

첫째 전국민의 기술 및 기능화를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모두 하나의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익혀 농어민으로부터 도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생업을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영위하게 함은 물론, 이들 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국가건설에 집결시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건설 복지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농민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익혀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게 하며, 학생들은 기본기능과 기술을 배워 졸업후 우수한 기술인력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동자나 미숙련기능자들을 훈련시켜 생산성 높은 기능인력화하며, 공문원은 행정의 과학화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기업화들도 과학과 기술을 알고 새로운 과학적 관리기법으로 기업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개발로써 우리의 경제가 당면한 막중한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군인들도 군에 복무시 특정 기술과 기능을 배워 사회에 복귀할 때 곧 생산인력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등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일인일기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우리인력을 생산인력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본 및 자원의 부족, 국토의 협소, 인구의 과다 등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조기과학기술교육의 강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대학 및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과학 및 기술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필요하다면 학제까지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후 우리 교육의 최대과제는,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새로운 상황에의 적

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Computer의 시대, 자동화, 초고속화의 과학기술시대에 언제까지나 관념적이고 실천성이 없는 탁상교육만을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교육의 강조는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진취적이며 적응력 높은 인격형성에 기여하리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이외에도 비진학청소년, 군인,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민의 기술습득을 위하여는 새마을 기술지도활동을 적극추진하여 새마을 공장 농가 공산품의 개발, 지방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의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주역을 맡은 가정주부도 생활환경 개선, 영양관리, 위생관리, 가계관리 등의 과학화를 위하여 실생활 기술을 익히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사고와 생활의 과학화

과학화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국민 의 사고와 생활을 과학화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능을 천시하는 그릇된 관습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고, 우리 국민의 사고와 생활 속에는 많은 비합리적인 요소가 아직도 잔존하여 있습니다.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가 합리적이고 과학화 될 때, 우리의 사회는 보다 실속있고 진취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깊숙이 뿌리박은 미신, 허례허식, 무사안일한 소극성, 비과학적인 생활인습 등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세우고 사회질서를 정립하며, 국민의 잠재에너지를 국가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 매스·콤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사고나 생활방식의 개선이란 장기에 걸친 꾸준

준한 교육, 계몽, 지도 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계신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의 역할은 더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나 생활방식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형성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과학화를 위한 일대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는 주입식보다 학생 스스로 “왜?”하는 의문심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하며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게 하여, 어릴 때부터 진리를 탐구하고 창조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위대한 과학자의 전기를 읽고 자연의 신비와 경이에 눈을 뜨게 하며, 과학기술의 놀라운 힘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일시적으로 될수 없는 것이고 과학자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기술의 혁신

다음으로 과학화운동의 또 하나의 방향은 산업기술을 혁신하자는 운동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기술혁신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가는 외국자본이나 기술과 정부의 지원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으로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보다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신장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은 새로운 영농 및 조림기술, 어로가공 기술을 익혀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녹색혁명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전국토가 산업권화되어 한치의 땅도, 어느 한 사람도 놓지 않는 생산하는 나라를 이룩하자는 운동이 과학화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학화운동은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진흥운동이요, 새마을운동의 발전적 전개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민족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근대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자의 사명과 역할

친애하는 교육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70년대 우리 나라 과학기술진흥 방향과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과학화운동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과학기술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일대혁신사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이 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과 협조하여 여러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겠지만, 이 운동의 성패는 역시 국민이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매스·컴이 국민 계몽에 앞장서야 할 것은 물론이나, 가장 핵심적인 중요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모이신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과학화 운동의 기수임을 자각하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과학화를 위한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 위에 세계로 비약할 수 있는 민족을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임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전념하여 오셨습니다.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교육받은 풍부한 인재는 바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창의에 의하여 배출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척자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대전환점을 맞아야 할 한국의 교육사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땀흘려 일한 보람은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